

2010년 6월 26일 토요일 새벽말씀

섭리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집회를 이끌어 주시며 일일이 잡아 주시니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동안 세상의 그 많은 환난을 이기고, 30년 동안 주님을 극진히 모셔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갈 곳을 정해 두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니 섭리역사 최고 기적의 때입니다. 정말 복 받았습시다. 이때 주님을 환영하며 모두 뛰어들어야 됩니다.

육신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해야 되지만, 영적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해야 됩니다. 자기는 정말 그렇지 않는데 보는 자들이 좋게 말하지 않고 눈 흘겨보면, 눈 감고 귀 막고 주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별말을 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게 새벽에 말씀해 주신 것을 또 말해주라고 하셨기에 전해 줄 테니 잘 듣기 바랍니다.

1.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자다. 더 아름다운 자는 남의 십자가까지 말없이 기뻐하며 지고 가는 자다.
2. 현재 신앙이 살아 있고 정신이 살아 있는 자는 과거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고, 현재도 주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안다.
3. 지금은 섭리사 클라이맥스다. 은혜와 계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들이다. 이때가 지나면 우리끼리 서로 성령의 불을 붙여 줘야 된다. 이때 자기 짐들을 모두 벗어 버리고 신부의 옷

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4. 주님을 바짝 따라다녀야 그 바람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쉽게 할 수가 있다.

-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붙어 다녀야 그 바람결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떨어진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여 스스로 장단점을 깨닫고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따라가게 되지만, 주님과 떨어진 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느끼면서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주님 바람에 초월하여 눈으로 보면서 가게 되지만, 주님과 떨어진 자는 스스로 힘써서 행하여 바람을 일으키며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면 너무 힘듭니다. 자신이 잠도 깨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5. 성령을 만나면 감동되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능력이 오고 담대해지고, 주님을 만나면 사랑스럽고 기쁘고 무조건 좋다. 주님은 “안 보여도 그런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므로 우리를 만나면 애인을 대하듯 하십니다. 안 보여도 그같이 느낌이 옵니다. 마치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섭리사는 성령의 잔치 중입니다. 이 잔치 때 주님을 신랑으로 꼭 맞아야 됩니다. 이때 주님을 맞은 자는 마지막 재림 때도 주님을 맞습니다. 지금 예비 심사 중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안 주시

지? 왜 나는 각종 은사 중에 하나도 못 받는 것이지?’ 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은 “성령께서 은혜를 차별해서 주시겠느냐. 혹여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직 집회가 남았으니 끝까지 몰두하여라.” 하셨습니다. 또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셨습니다.

선생은 뒤처진 자들과,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과, 형제들과 서로 심정 싸움하다가 집회에 가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과,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자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성령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생이 함께 가고 있으니 이제 한 명도 뒤처지지 말고 선생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걸어오고, 더러는 오지도 않고, 더러는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보고 선생이 성령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다 데리고 가려고 내렸으니, 이제 선생님의 정을 알고 한 명도 뒤처진 자 없이 선생과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뒤로 처지면 선생도 정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나 수녀, 토마스 주남, 린다 뉴커크, 메어리 캐더린 벅스터의 책들을 읽어 보았지요? 주님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만 주시고,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주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였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고 지옥에 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자기가 안 하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을 통해 늘 책임분담을 외쳤지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과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도 주님도 인간을 찾을 만큼 찾으셨습니다. 목자가 깜깜한 밤에 잃은 양을 부르며 찾을 만큼 찾았으니, 이제 양이 소리를 내어 목자를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저기 있구나!” 하고 계속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집회 장소에 쫓아갈 자들은 무조건 가야 합니다. 화면으로 볼 자는 전심으로 교회에서 간구해요. 선생도 같이 특별기도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중에서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 있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집회 장소에 쫓아가서 강사한테 기도를 받아요. 갈 교통비가 없으면 차비를 써서라도 가요. 해 놓고 봐야 됩니다.

선생은 10대에 금산까지 걸어 다니면서 부흥집회 장소 맨 앞에서 부흥강사의 기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다 끝나고 다시 집에 걸어오면 날이 샀습니다. 새벽예배까지 보고 뛰어 오기도 했습니다.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집회 때 ‘저기 누구 왔다.’ 하며 힐끔거리고 수군대지 말고 반갑게 대해 주고 화목하게 하기 바랍니다. 섭리사에서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이 억울함을 가혹하게 받아 보았기에 그 같은 고통을 받는 자들을 이번 집회 때 다 챙기려 합니다. 그러니 모두 억울함 없이 대해 주고, 이제는 모두 선생 대하듯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답장이 안가니까 못 받아 보았냐고 계속 묻는 편지들이 많습니다. 편지 그만 하라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편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보고 편지와 결재 편지는 해야겠지요.

편지가 제일 아깝게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습니다. 보기만 하는데도 정말 아까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어느 때는 편지를 읽고, 선생 같아도 편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간단하게만 답장을 써 준다고 해도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편지를 읽는 것도 극히 귀한 시간과 내 공적 시간을 아껴 쓰면서 읽어 봅니다. 꼭 편지로 한마디 하고 싶으면 지도자들에게 두 줄 정도로 말해 주세요. 그러면 지도자가 30명 이상씩 한 편지에 써서 모아서 보내 주면 간단히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편지가 많이 와도 눈총을 받습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면회는 아주 극적인 공적인 면회만 됩니다. 한 달에 5회 이상 못 하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 받은 곡을 전해 줘야 됩니다. 다 계획이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말아요.

편지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는 편지를 3장씩, 4장씩 쓰는데 정말 문학에 신경 좀 써서 써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는 편지를 길게 썼는데, 읽어 봐도 꼭 써야 할 것을 안 써서 읽고도 속이 상합니다. 핵심을 쓰면 읽고서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는데 다른 내용만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는 선생을 잘 알겠지만 선생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알던 자들도 같은 이름이 많아서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알쏭달쏭합니다. 어떤 자는 이름을 안 쓰고 사연만 써 보내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길게 썼는데도 잘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쪽지를 넣고 가는데 번거롭게 하지 말아요. 여기 오느니 그 교통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을 선생은 원합니다.

정말 필요해서 편지 보낼 자들은 꼭 핵심만 써요. ‘새가 운다. 꽃이 폈다. 날이 덥다.’ 이런 말들은 다 빼요. 새는 울고, 꽃은 피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해서 새들과 꽃들이 달리 하겠어요? 그러니 핵심만 써요. 편지가 오면 읽기는 하지만, 답은 꿈으로 받고 주님께 받기 바랍니다. 편지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선생은 어디를 가나 잘 있으니 염려 말아요. 밖에 있는 여러 분들이 교회 안 다닐까 걱정, 교통사고 날까 걱정, 먹고 사는데 문제없나 걱정,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못 만나 걱정, 서로 오해하고 싸우나 걱정, 뛰쳐나가는가 걱정입니다.

선생은 잘 있습니다. 섭리에 밀린 일들을 여기 있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섭리사 손해 안 가게 100배, 200배 할 테니까 모두 힘내서 해요.

계시받는 자들은 분별하는 자들이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사탄들이 계시하여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소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소란의 영입니다. 편만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압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모두 잘 살펴 봐요.

그러나 꼭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이 먼저 잘 분별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침착하게 설명해 줘야 분별하는 자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바짝 붙어 따라가야 그 바람에 모든 것을 초

월하여 행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떨어진 자는 자기가 바람을 일으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 힘듭니다. 그리 알고 주님과 일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앞으로 각종 보고들은 교단 민원국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에게 직접 하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할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교단 사무실이 아니라서 더 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교단에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각 교회 전세등기서도 교단에서 관리하고 계약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각 교회별로 하니 문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